

2024. 3. 6.(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서울시설공단 교통정보처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02-2133-4950
교통정보팀장	정옥경	02-2133-4975
담당자	안재성	02-2133-4980
교통정보처장	양영진	02-2290-6811
교통정보처 운영팀장	원동근	02-2290-6820
교통정보처 차장	김정호	02-2290-6506
관련홈페이지	<a href="https://smartway.seoul.go.kr">https://smartway.seoul.go.kr</a>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6쪽

###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사고 시 영상검지기로 예방한다..안전 강화 효과

- 강변북로 성산~반포구간 시범사업 결과 보행자 등 33건 검지...사고 방지 기여
- 보행자·차량·역주행 여부 등 신속히 확인 가능, 현장 대응부터 정보 전파 도움
- 올림픽대로 반포~잠실 구간 등 추가, 향후 도시고속도로 8개 노선 171.7km 확대 예정
- 봄철맞아 보행자등 출현지점 대상 교통안전시설 개선..“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자제 당부”

- 앞으로는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인 도시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했거나,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몰래 통행하던 보행자나 이륜차를 AI영상검지기가 자동으로 찾아내어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듦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강변북로 성산~반포구간 내 AI 영상검지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 중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한 보행자 등 33건을 검지하며 빠른 현장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 도시고속도로는 보행자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자동차전용도로이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출현 등으로 도로 내 사고 요인이 발생해 왔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3년도부터 강변북로 성산~반포구간을 시작으로 AI 영상검지기를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을 더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AI 영상검지기는 사람출현, 정지차량, 역주행 차량 등의 빠른 인지가 가능해 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AI영상검지기는 교통정보(교통량, 속도) 수집과 동시에 사람, 정지차량, 역주행 차량 등을 검지하여 10초 이내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상황실에 알려주며, 상황실은 인지 즉시 경찰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도로 전광표지, 내비게이션 및 홈페이지 등에 돌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특히 '23.9~12월까지 4개월 간의 시범 운영 기간동안에는 보행자 28건, 자전거 1건, 이륜차 4건을 검지하는 성과를 냈고, 이 중 11건은 즉시 출동 경찰에 인계하며 현장 대응과 정보 전파에도 빠르게 적용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도시고속도로에서 보행자 진입 등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5건으로, 매년 1~2건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 AI 영상검지기를 통해 실시간 검지가 가능해지고, 고차원적인 교통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는 서울 도시고속도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AI 영상검지기 도입을 확대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현 운영 구간인 강변북로 성산~반포 구간(50대)에 이어 '24년 연내 중 강변북로 반포~성수 및 올림픽대로 반포~잠실 구간(50대)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향후에는 도시고속도로 8개 노선 171.7km 전 구간에 총 857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 현재 도시고속도로에 설치·운영중인 교통정보수집장치(교통량, 속도검지)가 노후화되어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AI 영상검지기 도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 출현시 교통관리센터 실시간 대응 체계도〉

- 또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한강 교량에서 공원 지역, 주거지 등 인근 부지로 이동하기 위해 도시고속도로로 무단 진입하는 보행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AI 영상검지기 활용과 함께 서울시설공단, 관련 외부 전문가와 교통 안전 시설을 집중 개선할 예정이다.
-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관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안전시설 집중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보행자 등의 진출입 경로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안전표지(보행자 진입금지 등), 진입방지 시설(가드레일, 웬스 등)의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연중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시는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시고속도로 내 진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발견한 운전자는 신속히 112에 신고하면 된다.
- 특히 이륜차,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이용하는 시민은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니 진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AI 영상검지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고속도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순차적 확대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I영상검지기 보행자 검지 및 조치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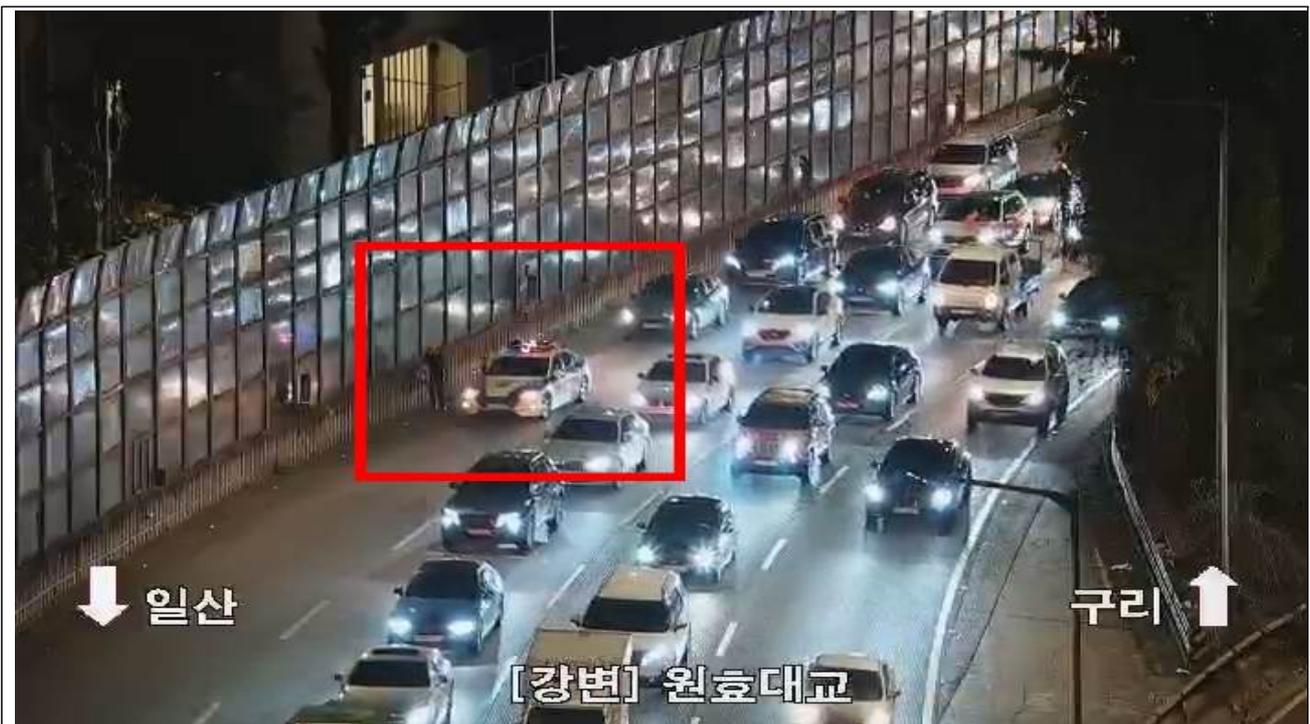
〈보행자 검지 화면〉



〈보행자 조치 화면〉



〈보행자 검지 화면〉



〈보행자 조치 화면〉